

# 덕양선원 '천수대비주 수행도량' 우뚝

## 두번째 10만독 성취 기념법회...신도들 집중수행 '원동력'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근으로 수행과 포교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성과를 낸 사찰이 있어 화제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도시에 자리잡은 덕양선원(선원장 범상)이 바로 그곳이다.

덕양선원은 6월 8일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천수대비주 10만 독 성취 기념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300여 신도가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20만 독을 성취한 도영 김갑수(55), 19만 독을 성취한 도명 이준오(50) 거사, 16만 독을 성취한 여안 변은진(47) 보살 등 10명의 신도들이 다라니 10만독 회향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10만 독을 성취한 도립 심재덕(52) 거사는 "마음 속의 불안, 초조 등 온갖 아픔을 털어내고 점점 더 맑은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12만 독을 성취한 감로원 방희근(49) 보살은 "다라니 정진을 통해 만성신부전증과 불면증의 고통을 이겨낸 것은 물론 자



6월 8일 제2회 천수대비주 10만독 성취를 이룬 덕양선원 신도들과 선원장 범상 스님.

식이 대학교에 합격하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등 신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은 덕양선원에서는 천수다라니 10만 독은 이제 다라니 정진의 입문과정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점 수행자들이 많은 절이 되었다. 신도들은 적게는 1

만~10만 독에서부터 30~40만 독, 최고 117만 독(원명화 김순자 보살)에 이르는 천수다라니 정근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최근 100만 독을 성취했지만, 외부로 이름이 알려지기를 꺼려한 박모 거사는 다라니 정진을 일념으로 하는 동안 대비주가 어느새 회광반

조(迴光返照)하는 화두로 변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박 거사는 "90만 번이 넘어갈 때쯤 '듣는 성품을 들이키는' 반문문성법(返聞聞性法) 수행을 하게 되어 일체중지(一切種智) 증도정관(中道正觀)을 향한 공부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도들의 집중수행은 단기간에 덕양선원을 수행전문 도량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신도들이 공식적인 정진을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 20일. 100일 기도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100일 기도가 끝나자 1000일 기도를 새로 정했고, 그 과정에 다라니 100일 기도를 계속 진행해 왔다. 100일 기도 중에는 7~10일간 하루에 1000독을 하는 가행정진을 수없이 했고, 매주 금요일은 어김없이 철야정진을 했다.

물론 덕양선원은 마음공부와 더불어 보살행에도 적극 나서 안팎이 조화된 수행 및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신도들은 <천수경>

과 다라니 독송 수행기를 엮은 책을 세 차례나 발행해 법보시 했다. 마음이 맑고 밝아져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진 신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들었으며, 수행자 자신과 가족이 함께 행복해졌다. 덕양선원 카페(http://cafe.daum.net/zeol) 운영자인 혜연 황해상(48, 육군 대령) 거사는 "남모르는 기쁨을 입어 질병이 낫거나, 고난에서 벗어난 일들이 이루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더구나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매일 공주교도소나 군법당을 후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하루 5시간 40분씩 교박 목탁을 치며 정진을 이끌어온 범상 스님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웅맹심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대비주 수행을 통해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며 생활 속의 정진을 당부했다.

덕양선원의 성공 사례는 도심포교당이 나아갈 방향이 기복 보다는 수행에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031)907-7172 김성우 기자



6월 7일 감로사에서 열린 총담선사 열반 10주년 영산재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목경배 동국대 명예 교수.

## 총담 스님 열반 추모영산재

### 태고종 감로사에서 봉행

김연식 디에스디 삼호그룹 회장, 정영희 감로사신도회장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추모재에서 목경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총담 대선사의 소신공양과 한국불교의 희망'이란 논문을 통해 "감로사에서 소신공양으로 열반하신지 10주년이 되는 날 총담 스님의 원력이 시방세계, 한국사회에 새로운 원력과 희망을 점지하는 화염광(火焰光)삼매로 화현하였으니, 우리들도 심핵(心核)삼매의 위력을 발휘하는 불자가 되어 남북통일과 부처님의 정법 실현하자"고 말했다.

태고종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7일 등공사리탑(총담스님 부도) 앞에서 '총담 대종사 소신열반 10주년 추모영산재' 및 승가사 이전 건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총담대선사문도회장 도성,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과 정병국 국회의원, 김성우 기자

## 산사에서 漢字공부 어때요

### 미항·부석사 여름방학 맞아 한문학당 운영

해남 미항사와 서산 부석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한문학당을 연다.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는 6월 30일까지 올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과 수행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의 동점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한문학당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 8월 6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 '참사람의 향기'는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9년째 맞는 미항사 어린이 한문학당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과 예절, 문화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참사

랑의 향기'는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061)533-3521

한편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학당을 연다.

한문학당은 <사자소학>과 <법구경>, <명심보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엮은 <수심보감>이라는 책을 교재로 진행한다. 템플스테이와 인근청산리 수목원의 연꽃 축제, 신두리 바닷가 탐사, 반야심경 대장경판 인쇄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041)662-3824. 김성우 기자

## "염불은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

###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 8주년 기념법회

"염불은 부처님 원력에 섭수되는 길입니다."

정토사 정토사(주지 보광)는 만일염불결사회 8주년 기념법회를 6월 6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 법문을 했다.

자승 스님(중앙종회위원장), 김종서 前 덕성여대 총장, 한나라당 주호영, 정욱임, 신영수 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정무 스님은 대중들에게 안부를 묻는 말로 법문을 시작했다.

"안녕하지 못할 때는 염불하지 않을 때입니다. 진리를 구하며 사는 내가 곧 보살이라는 마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염불수행을 시

작합니다." 정무 스님은 "삶은 학생의 공부와 같고 유언장은 졸업논문에 즐겁게 졸업하자"며 "행복한 삶을 위한 염불은 오염된 물을 정수기에 걸러 먹는 것이 아닌 맑은 물을 떠먹는 것이요, 고해 바다를 건너는 연락선"이라고 강조했다.

젊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세태도 지적했다. 스님은 "죽음을 연장한 노후준비는 의미가 없다. 오늘날 복지는 경로(敬老)가 아닌 천로(踐老), 기로(棄老)다. 가정과 이웃을 위해 남김없이 희생하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사는 날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한 방법이 염불이다. 한 생각 끊이지 않고

염불하는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법문했다.

이날 만일염불결사회 회주 보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일염불결사회 8주년을 계기로 신라시대 염불자의 불교사 창건에 비견되는 불사를 펼치겠다"며, 만일염불결사회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만일염불결사회에는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는 기치로 2000년 6월 6일 일제해 2027년 10월 22일 회향까지 1500여 염불행자가 동참중이다.

정토사 정토사를 본사로 장충동 향천선원, 대구 만선염불원, 부산 여래선원 등이 염불결사 도량으로 나섰다. 대구 만선염불원은 신도의 직접 운영으로, 부산 여래선원은 청각 장애자 중심의 염불원으로 주지 도은 스님이 모든 법문을 수화로 진행해 유명하다. 조동섭 기자



6월 6일 낙성식을 가진 제천 금강사.

## 충북지역 여성불자교육도량 문 활짝

충북 제천에서 여성불자 교육도량이 마련됐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활안)은 6월 6일 제천시 모산동에 금강선원 부설 여성불자 교육도량 금강사 낙성식 및 불교여자전문대학 개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 등 50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활안 스님은 개원식 법문을

통해 "금강사는 자리이타·각행원만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곳에는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여성불자들을 위한 복지타운도 건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17일 기공식을 가진 금강사는 60평 규모의 법당과 부처님진신사리 5층석탑, 종각 등으로 조성됐다. 김성우 기자

##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학인 및 염불원생 모집

태고총림 선암사 전통 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입생·편입생 및 염불원생을 모집합니다.

### ◆ 강원생 모집 (수시모집)

- Ⅰ 치문반 ----- 00명
- Ⅱ 사집반 ----- 00명
- Ⅲ 사교반 ----- 00명

### ◆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강원 소정양식) ----- 1
2. 승적증명서(또는 수계증사본) ----- 1 [32기 합동특도자 입학가수]
3. 주민등록 등본(입방후 선암사 전입) -- 1
4. 건강진단서 ----- 1
5. 은사스님 추천서 ----- 1
6. 승복차림 사진(3×4cm) ----- 3매
7. 범죄사실 열람조회서 ----- 1
8. 입방비 30만원

### ◆ 준 비 물

대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한한사전

### ◆ 염불원생 모집 (수시모집, 타종단 환영)

- Ⅰ 기초삼보 통창에서 상주권까지
- 실기실습 ----- 범음범패 (목탁, 태징, 바라, 착복(나비춤), 호적)
- 모집인원 ----- 00명

### ◆ 구비서류

1. 입학원서(선암사 소정양식) ----- 1
2. 승적증명서 ----- 1
3. 주민등록 등본 ----- 1
4. 승복차림 사진(3×4cm) ----- 3매
5. 범죄사실 열람조회서 ----- 1

### ◆ 준 비 물

대가사, 장삼, 발우, 목탁, 필기도구

※ 문의처 : 061)754-5247, 5953 / 011-254-3037

주 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www.seonamsa.co.kr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장 경담 합장

태고총림 선암사

## 태고총림 선암사 재적승 승적정리

귀의삼보 하옵고,

선암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신 재적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재적승 승적정리가 이행되지 못하여 중무행정상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재적스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빠짐없이 전원 동참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 승적사본(총무원 발행) · 이력서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2. 기 간 : 2008년 6월 23일 ~ 2008년 7월 22일

3. 접 수 처 : 선암사 중무소

※ 문의처 : 061)754-5247, 5953

주 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홈페이지 : www.seonamsa.co.kr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경담 합장